

“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”



보도자료

“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”



▶ 보도일시: 9.2(금), 석간
<인터넷 9.2(금) 08:30 이후>
▶ 총 4 쪽

- ❖ 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 과장 김현수
사무관 이상섭
☎ 02-2150-5574, 010-8813-1568
- ❖ 교육과학기술부 직업교육지원과 과장 김환식
사무관 박찬호
☎ 02-2100-6394, 010-8882-5053
- ❖ 행정안전부 인력기획과 과장 김운호
사무관 이은호
☎ 02-2100-8511, 010-4902-8832
- ❖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과장 이정환
사무관 하정용
☎ 02-2110-7160, 010-8635-6046
- ❖ 병무청 기획재정담당관 과장 박희관
사무관 송인호
☎ 042-481-2636, 010-3735-5616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>

“학력이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”

- 정부, ‘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방안’ 마련

- 내년부터 중소기업 고졸 청년 인턴을 2만명으로 늘리고, 인력부족 업종에 취업하는 경우 ‘취업지원금’도 더 지급(’11년 1백만원 → ’12년 2백만원) 한다.
-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액을 1인당 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하고, 입영연기가 가능한 고졸취업자 범위를 ‘일반계고 포함·전업종’으로 확대한다.

□ 정부는 9.2(금) 오전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「제4차 공정사회추진회의」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「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방안」을 마련하고, 관계 전문가와 현장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토론을 실시했다.

○ 이번 방안은 취업에 ‘능력’ 보다 ‘학력’이 우선시되고 대학진학률이 80%에 이르는 등 ‘학력지상주의’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폐단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

-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취업에 도움이 되는 현장 교육이 필요하고, 고졸자에게도 취업 문을 활짝 열어 대학을 가지않고도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‘열린 고용사회’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다.

□ 이를 위해 우선, 학교의 직업교육을 내실화하고 특성화고·마이스터고 학생의 취업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.

○ 학교에서 월 1회 '진로체험의 날' 운영, 기업·공공기관의 교육기부 (시설제공 등) 활성화 등을 통해 '직업'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,

○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갈 경우, 기업이 이들을 위해 지출한 현장실습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*를 신설기로 했다.

* 지출비용의 25%(대기업은 3~6%)

□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고졸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한다.

○ 중소기업 청년인턴 중 고졸인턴 규모를 확대하고, 인력부족 업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'취업지원금'도 더 지급하기로 했다.

* 중소기업 고졸인턴: '11년 1.2만명 → '12년 2만명

* 제조업·생산직 등 인력부족 업종 취업시 취업지원금 상향조정('11년 100만원 → '12년 200만원)

- 특성화고·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「고용 창출투자세액공제」를 확대(1인당 1천5백만원 → 2천만원)할 예정이다.

○ 아울러, 고졸 취업자의 병역에 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학교 공부와 직장 및 군대에서 맡게 되는 업무 간 연계*를 강화하고

* 마이스터고(정밀기계과) → 기업(자동차 정비 담당) → 군대(기계 수리병)

- 입영 연기가 가능한 고졸취업자 범위와 「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제」 적용대상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
* 입영연기 대상: (현행) 특성화고·제조업 → (개선) 일반계고 포함·전업종

*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제 적용대상: (현행) 대학생 → (개선) 모든 입영대상자

○ 한편, 특성화고와 산업정보학교에 취업지원 전문인력* 배치도 확대하여 학교의 취업지원 역량도 강화하기로 하였다.

* 취업지원 전문인력: '11년 100명 → '12년 150명

□ '인턴' 활동이 '채용'으로 이어지고, '현장경력'이 우대되도록 채용 관행도 바뀌나간다.

- 정부·공공부문부터 인턴을 통한 채용방식의 도입 등을 통해 시험 위주의 채용관행을 바꾸하기로 하였다.

* (공 무 원) 기능 기술직 채용시 인턴방식 도입, 일반직 확대('13년)
* (공공기관) 고졸 인턴 경험자 중 정규직 채용경로 신설('12년)
* (민간기업) 학력을 대신할 「필수직무능력 평가기법」 개발·보급('12년)

□ 채용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열려있는 인사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

- 공공기관부터 인사·보수 규정을 정비하여 고졸 입사 후 4년 이상 근무자는 대졸과 동등 직위를 부여하기로 하였다.
- 대기업 사내대학에 관련 중소기업 직원의 입학을 허용('12년, 「평생교육법」 개정)하고, 재직자 특별전형 도입 대학을 확대*하기로 했다.

* 재직자 특별전형 도입대학(거점 국립대학 중심): '11년 7개교 → '12년 30개교

□ '학력'이 아닌 '실력'으로 인정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기술·기능인에 대한 우대를 강화한다

-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숙련 기술인의 성공스토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, 이들을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기로 하였다.
- 산업현장 전문가로 「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*」을 구성하고, 정부 위원회도 현장전문가 중심으로 개선할 예정이다.

* 현장 숙련기술자, 기능장, 기술사 등

□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“현장에서 실력으로 내공을 쌓은 젊은 이들이 학력의 벽을 넘어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게 목표” 라고 전하면서

- “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‘열린 고용사회’를 만들 수 있도록 공생발전의 틀을 착실히 만들어 가겠다” 고 밝혔다.

< 첨부 >

「열린 고용사회」 구현을 위한 주요내용

구분	주요과제	비고
직업인 꿈 키우기	○ '진로체험의 날' 지정·운영	· 매달 1회, 토요일
	○ 마이스터·특성화고생 현장실습·인턴비용 세액 공제	· 비용의 25% (대기업 3-6%)
능력 중심 채용	○ (공무원) 인턴방식의 기능인재 추천채용(기능직 9급) 확대	· ('11)특채의 6% → ('12) 10% (50명) (85명)
	○ 고졸자의 중소기업 인턴제 확대	· 중소기업: ('11)32→('12)40천명 (고졸) (12) (20천명)
	○ 취업지원금 상향 조정 * 제조업·생산직 등 인력부족 업종 취업 청년에게 직접 지급	· ('11) 100 → ('12) 200만원
	○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(마이스터·특성화고교생 채용시) 확대	· 1인당 15→20백만원
	○ 「학교(전공)-직장(직무)-군대(병과)」 간 연계 강화	
	○ 고졸 취업자 입영연기(24세까지) 대상 확대	· 특성화고, 중소제조업 → 일반고, 전 업종
개방된 인사 관리	○ (공공기관) 고졸에 대한 차별적 인사규정 개선	· (예)고졸 후 입사 4년차이상은 대졸과 동등 직위 부여
	○ 사내대학 입학대상 확대	· 사내대학 설치기업 소속 직원 → 협력업체 직원도 허용
능력 중심 사회 여건	○ 성공한 최고 숙련 기술인 '국민 스타화'	· 대한민국 명장, 기능 한국인 등 적극 발굴·홍보
	○ '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' 구성·운영	· 현장 숙련기술자, 기능장, 기술사 등
	○ 정부위원회에 현장전문가 참여 확대	· 현재는 학계 중심(43%)